

The Effect of Students and Teachers Characteristics on Adolescent Students' Citizenship

Ra, Jong-min (Kookmin University)

Kim, Soyoung¹⁾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students characteristics(reading, the frequency of delinquency, subject grades) and teachers characteristics(teachers enthusiasm, teachers teaching ability,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 on the citize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latent class analysis.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GEPS) 2016(4th) data was used. A total of 3,033 responses were used after using the listwise deletion method. Of the 3,033 employed in this study, 1,443 (47.6%) were boys and 1,590 (52.4%) were girl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students' citizenship was categorized into three latent classes; high, medium, low. 2) The highest proportion was the medium citizenship class, followed by the high citizenship class and the low citizenship class. 3) The higher the frequency of delinquency,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medium or lower class than the class with higher citizenship. 4) Teachers characteristics increased the likelihood that students would belong to the high or medium citizenship class than the class with lower citizenship. In particular, the teachers enthusias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tudents' citizenship. This study show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tudents' citizenship and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environment around students to improve students' citizenship.

Key Words: reading, the frequency of delinquency, teachers enthusiasm, teachers teaching ability,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

1) Corresponding Author: Kim, Soyoung,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Yangjae 1239, Songpa-gu, Seoul, Korea / E-mail: ksoyoung@knsu.ac.kr

학생특성 및 교사특성이 청소년 시민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라종민 (국민대학교)
김소영 (한국체육대학교)¹⁾

< 요약 >

본 연구에서는 경기교육종단연구 4차년도 데이터(중학교 1학년)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시민의식에 대한 학생변인(독서활동, 비행빈도, 교과성적) 및 학생이 인식한 교사변인(교사사기 및 열의, 교사수업능력, 학습자중심 수업)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값을 완전제거법으로 처리된 3,033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시민의식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시민의식은 중립적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시민의식이 높은 집단, 그리고 시민의식이 낮은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변인(독서활동, 비행빈도, 교과성적)이 청소년의 시민의식 잠재계층에 미치는 연구결과에서 교과성적은 시민의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행빈도가 높아질수록 시민의식이 중립적, 또는 낮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변인은 청소년의 시민의식이 중립적, 또는 높은 시민의식 계층으로 속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시민의식은 청소년 스스로가 지닌 요인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교사 등)이 청소년의 시민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청소년을 둘러싼 주변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사의 사기 및 열기는 청소년의 시민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현장에서 교사-학생 간 긍정적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주요어: 독서활동, 비행빈도, 교사사기 및 열의, 교사수업능력, 학습자중심 교수방법

1) 교신저자: 김소영,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 E-mail: ksoyoung@knsu.ac.kr
논문투고: 2018. 08. 28 / 심사일자: 2018. 09. 23 / 게재확정일자: 2018. 09. 26

I. 서론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의 성숙한 인격적 성장보다는 인지적 영역인 학업성취 신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우리나라 교육은 미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기 보다는 타인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국제 학업성취도 결과와 지적역량은 세계 최고의 성취를 이루고 있으나 타인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능력, 시민역량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태준 외(2011)는 우리나라 초등학생 시기의 시민의식은 국제사회 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장근영, 박수역(2011)도 초·중등 시기의 시민의식은 실천적인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 집단따돌림이나 집단폭력, 성추행, 교권침해 등으로 나타나는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시민의식은 자신의 자유·권리를 소유하며, 타인의 자유·권리를 배려하는 의식과 공동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이바지하는 책임의식을 말한다(박용현, 1996; 은지용, 2002; 황운주, 2001). 청소년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봉사활동 동기, 진로성숙도, 학업스트레스(곽미정 외, 2010), 임원경험(박성업, 2004), 사회자본(윤도영, 2013), 봉사활동(은지용, 2002), 학생 간 관계, 교사열의, 교사 수업 능력, 직업가치(김현주, 2015)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김현주(2015)는 경기교육중단연구 1, 2차 중학교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개인적 가정변인을 통제 후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적 측면을 심리사회적 환경, 인권적 학교 환경, 교사역량, 학생의 학교생활로 구분하고 이들의 시민역량에 대한 영향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위 연구들은 모두 연구에 포함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시민의식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 현장에서 특별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시민의식이 부족한 학생이나, 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교육중단연구 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시민의식 정도에 준하여 그룹을 잠재계층분석으로 확인한 후, 각 그룹에서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학생과 교사 특성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학생특성 변인으로는 독서활동, 비행빈도, 교과성적이 포함되었고, 교사특성 변인으로는 교사사기 및 열의, 교사수업능력, 학습자중심수업 변인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중학교 1학년 학생)시민의식은 잠재적으로 몇 그룹으로 구성되는가?

연구문제 2. 잠재 그룹별로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 교사특성 변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1. 시민의식 개념 및 구성요소

시민의식의 사전적 의미는 ‘시민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규범 의식과 도덕 의식’이다. 여기에서 시민은 라틴어 ‘치바스’ (civitas)로서 도시(국가)를 뜻하는 ‘치비타스’ (civitas)에서 기원하며(박효중, 2002), 원래 중세 도시 신분 계급에서 시작하여 근대 사회 혁명을 거쳐 자유와 권리를 가진 시민이 갖추어야 할 정치적·경제적 의식으로 확장되었다(박균열, 2013).

시민의식은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의 하나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자질이다. 이러한 자질은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가변적 성격을 지지며(김현주, 2015),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시민의식은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형성되며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 가치, 책임, 권리를 말한다” (김현주, 2015, p. 177). 또는 시민의식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제도와 가치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의식과 태도를 말한다” (허경미, 2011, p. 288). Ross(2007)는 “시민의식은 참여와 자원봉사 및 모든 시민을 위해서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공동체 개선을 지향하는 것”이라 하였다(조호운, 조성환, 김영희, 2017, p. 731 재인용). 송호근(2015)은 시민의식을 “주체성을 갖춘 개인이 다른 개인과 더불어 사는 공생의 지혜, 공공성에 대한 긴장과 윤리를 갖추는 것”이라 정의하였다(김정은, 최용민, 2017, p.8에서 재인용). 시민의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나, 일반적으로 민주질서와 가치를 잘 이해하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의식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시민의식의 구성요인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 1>은 2005년 이후 연구(최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함)에서 나타난 시민의식 구성요인이 나타나 있다. <표 1>을 참조하면,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참여의식, 의사결정능력(또는 문제해결력), 평등의식(또는 타인배려, 인간존엄성, 관용의식), 질서의식(또는 준법정신, 법질서 의식), 공동체의식(또는 연대의식, 국가의식)을 시민의식의 구성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1> 시민의식 구성요인

연구자	시민의식 구성요인
곽미정, 문신용(2010)	사회참여의식, 민주기본질서 및 절차, 합리적 의사결정, 인간존엄
김영인(2005)	타인배려, 연대의식, 사회책무성, 참여자세, 비판능력, 문제해결력
김영하(2005)	공동체의식, 인간존엄성, 준법정신,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참여와 책임
김태준 외(2010)	평등의식, 자유의식, 공동체의식, 인간존엄성, 평등의식, 의사결정, 참여의식, 시민유대감, 시민 자아개념, 다양성, 애국심, 국가와 시민기관 신뢰
모경환, 김명정, 송성민(2010)	참여의식, 관용의식, 내적 정치효능감, 외적 정치효능감, 준법의식, 봉사의식
이수영(2009)	타인존엄성, 질서의식, 정치참여, 합리적 의사결정
지은림, 선광식(2007)	준법의식, 사회정의 의식, 참여의식, 봉사의식, 공동체의식, 평등의식
최용렬, 이재영(2008)	권리의식, 책임과 의무감, 참여의식, 사회적 가치수용, 국가의식, 국제관계 및 역사의식, 정치신뢰도, 관용성, 평등의식, 법질서의식, 참여의식

2.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시민의식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및 학교, 또는 사회의 교육을 통해 학습되며 아동이 학습하게 되는 시민의식은 성인기의 사회 역할에도 기여한다고 한다(Gross & Dymneson, 1991). 또한 청소년 시기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중요한 개념을 배우고 내면화 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시기이다(곽미정 외, 2010).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학생들의 시민의식 형성은 부모, 학교, 학생 개인의 특성 및 활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선, 부모측면에서 학생의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인 지지는 아동의 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정은 외, 2017).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자녀의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의 시민의식이 높게 나타났다(김경근, 2013). 부모의 관심적 양육태도도 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김현주, 2015), 부모의 시민의식 수준과 가족의 소득수준도 자녀의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친다(Lutkus & Weiss, 2007). 부모의 시민의식이 높을수록 자녀의 시민의식은 높으며, 빈곤가정 아동의 시민의식은 일반가정 아동의 시민의식에 비해 낮았다.

학생의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으로는 교사열의와 교사의 수업능력 변인이 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가지고 수업한다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경우, 교사들이 열의를 갖고 헌신하는 경우 학생들의 시민의식(평등의식과 준법의식)은 더 높게 나타

났다(김현주, 2015). 학교 내에서 교사-학생 관계는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학생-학생 간 관계는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학생 간 관계가 좋을수록 시민의식 요인 중 공동체의식과 평등의식이 높았다(김현주, 2015).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의 준법의식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상벌점제는 학생의 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학교 만족도도 학생의 시민의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생 개인의 특성 및 활동 측면에서 학생의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대인관계역량이 있다. “대인관계역량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갈등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즉, 다른 사람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량” 이다(김정은 외, 2017, p. 10). 일반적으로 학생의 사회 참여활동 또는 봉사활동도 학생들의 시민의식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조호운 외, 2017). 그러나, 광미정 외(2010)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동기가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의동기와 여가동기가 높을수록 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외부영향에 의한 외부동기가 높을수록 시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신체적 자아개념도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쳤는데,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과 평등의식이 높아졌다(김현주, 2015). 학생의 직업에 대한 가치 변인도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경제적 보상, 사회적 인식, 권력 추구 등 외재적 목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 성취감 등 내재적 목적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려는 태도를 지닌 학생일수록 시민의식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김현주, 2015, p.197) 그러나, 학생의 과제 스트레스와 학원 스트레스는 시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광미정 외, 2010).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교 특성과 사교육 의존도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경기교육종단연구(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이하 GEPS) 4차년도 자료(2015년 조사자료, 중학교 1학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교육종단연구 4차년도에 참여한 6,305명의 응답을 모두 사용하기 보다는 결측치를 완전제거법(listwise deletion method)을 사용하여 총 3,033명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3,033명 중 남학생이 1,443명(47.6%), 여학

생이 1,590명(52.4%)로 나타났다.

2. 척도

가. 시민의식

총 17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인식하는 시민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7문항 중 5문항(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예: 교통질서)을 지킬 필요가 없다,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목격해도 나에게 피해가 안 된다면 모른 체한다,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남의 일까지 도와줄 필요가 없다, 내 일이 아니면 대충한다, 함께 협력해서 일해야 하는 경우에 슬쩍 빠져나온 적이 있다)은 역코딩 문항으로 분석에 앞서 역코딩 처리를 하였다. 17문항으로 구성된 시민의식의 문항은 <표 2>에 제시되어 있으며 문항간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871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일치도가 높은 수준이었다(Nunnally, 1978).

<표 2> 시민의식 문항

문항	M	SD
1 나는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57	0.98
2 나는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도와준 적이 있다.	3.57	0.94
3 주변에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3.75	0.90
4 같은 동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3.86	0.86
5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3.63	0.89
6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학생회장이 될 수 있다.	4.66	0.66
7 한국에 사는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4.58	0.69
8*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예: 교통질서)을 지킬 필요가 없다	4.15	1.00
9*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목격해도 나에게 피해가 안 된다면 모른 체한다.	4.02	0.96
10 어른이 되면 선거나 투표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4.33	0.91
11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4.21	0.95
12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4.19	0.86
13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이 타면 피곤하더라도 자리를 양보한다.	4.32	0.82
14 누가 길을 물으면 바쁘더라도 친절하게 대답한다.	4.07	0.88
15*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남의 일 까지 도와줄 필요가 없다.	3.96	0.97
16* 내일이 아니면 대충한다.	4.11	0.86
17* 함께 협력해서 일해야 하는 경우에 슬쩍 빠져나온 적이 있다.	4.08	0.95

* 역코딩 문항

나. 비행빈도

총 14문항으로 6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없다, 2=1년 1~2번, 3=한 학기 1~2번, 4=한 달 1~2번, 5=한 주 1~2번, 6=거의매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인식하는 비행의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4문항에 대한 개별 빈도를 분석하기 보다는 이들 문항의 총합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행빈도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독서활동

독서활동에 대한 설문은 10문항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독서활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 스스로 인식하는 독서활동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10문항으로 구성된 독서활동의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681로 나타나 Nunnally(1978)가 제시한 문항 간 내적일치도 기준보다 다소 낮았다.

라. 교과 성적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의 국어 성적의 평균은 64.65, 영어성적의 평균값은 64.27, 수학성적의 평균값은 63.35로 나타나 국어, 영어, 수학 교과평균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교사의 사기 및 열의

학생이 인식한 교사의 사기 및 열의는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선생님들의 사기(의욕)가 높다.’, ‘선생님들은 열의를 갖고 근무하신다.’,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갖고 계신다.’ 3문항을 포함한다. 교사의 사기 및 열의에 대한 평균은 3.59로 나타났다.

바. 교사 수업 능력

학생이 인식한 교사의 수업 능력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국어, 영어, 수학영역에 걸쳐 ‘선생님은 담당 과목

에 대한 지식이 많다.’,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 4문항으로 알아보았다. 학생이 인식한 국어교사의 수업능력의 평균은 4.23, 영어교사의 수업능력 평균은 4.07, 수학교사의 수업능력은 4.14로 나타났다.

사. 학습자 중심 수업

학생이 인식한 학습자중심수업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국어·영어·수학영역에 걸쳐 ‘선생님은 학생들이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결론을 내리도록 안내한다’, ‘선생님은 친구들이 의견을 발표하면 타당한 근거를 들어 그 의견에 동의하거나 비판하도록 유도한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 목표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생들은 학습 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 받는다’,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다.’, ‘학생들은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 ‘학생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9문항으로 알아보았다. 학생들의 인식한 국어영역의 학습자중심수업의 평균은 3.83, 영어영역의 학습자중심수업의 평균은 3.69, 수학영역의 학습자중심수업의 평균은 3.75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중학생의 시민의식에 대한 경향성은 단순히 시민의식 측정도구의 총합 또는 눈에 보이는 명백한 변인(성별 등)에 따른 분류보다는 보이지 않는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중학생의 시민의식을 탐색하기 위해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GEPS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시민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학생변인(독서활동, 비행빈도, 교과성적)과 학생이 인식한 교사변인(교사의 사기 및 열의, 교사의 교과수업능력, 학습자중심수업)으로 나누었다. 이후 학생들 스스로 인식하는 시민의식과 이러한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시민의식은 수식 ①을 통해 각 학생들의 학생변인 또는 학생이 인식한 교사변인의 영향에 따라 어떠한 잠재계

층으로 분류되는지 알아보았다.

$$\ln\left(\frac{p_{2i}}{p_{1i}}\right) = b_0 + b_1 \times (\text{학교변인}) + b_2 \times (\text{교사변인}) + b_3 \times (\text{학생변인}) \text{ ----- 수식 ①}$$

수식 ①에서 p_{1i} , p_{2i} 는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p_{1i} 는 중립적 시민의식을 지닌 잠재계층으로 사용하였으며 p_{2i} 는 비교대상인 높은 시민의식이 있는 잠재계층 또는 낮은 시민의식이 있는 잠재계층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b_0 는 절편을 b_1 , b_2 , b_3 는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계수(coefficient)이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GEPS 4차년도 자료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민의식, 독서활동, 비행빈도, 교사사기 및 열의, 교사수업능력, 학습자중심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3>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표 3>에 나타난 학생변인과 학생이 인식한 교사변인은 Kline(2005)이 왜도(<|3|)와 첨도(<|10|)에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여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표 3> 학생변인과 학생이 인식한 교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N	M	SD	왜도	첨도
학생변인	시민의식	3,033	3.44	5.84	-0.730	4.837
	독서활동	3,033	2.45	5.78	-0.010	0.162
	비행빈도	3,033	4.00	7.01	1.496	6.003
학생이 인식한 교사변인	교사사기 및 열의	3,033	3.59	2.44	-0.256	0.439
	교사수업능력(국어)	3,033	4.23	3.13	-0.862	0.361
	교사수업능력(영어)	3,033	4.07	3.51	-0.887	0.656
	교사수업능력(수학)	3,033	4.14	3.44	-0.947	0.698
	학습자중심(국어)	3,033	3.83	7.31	-0.291	-0.086
	학습자중심(영어)	3,033	3.69	7.91	-0.315	0.023
	학습자중심(수학)	3,033	3.75	7.88	-0.361	0.007

학생들이 인식하는 시민의식에 대한 잠재계층을 분석한 결과 잠재계층은 6개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잠재계층 결과만 제시하였다. <표 4>는 잠재계층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AIC와 BIC 값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낮은 값들이 적정 잠재계층 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표 4>에 나타나듯이 AIC와 BIC 값들은 잠재계층이 늘어날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시민의식의 잠재계층 수를 정하는데 있어 전적으로 통계적 접근뿐만 아니라 해석상의 접근도 필요하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본 연구는 학생들의 시민의식은 3개의 잠재계층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후 분석은 3개의 잠재계층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표 4> 잠재계층

	2	3	4	5	6
AIC	110724.60	10694.10	105169.50	10232.40	101293.30
BIC	111549.00	108181.70	106824.20	104395.30	10377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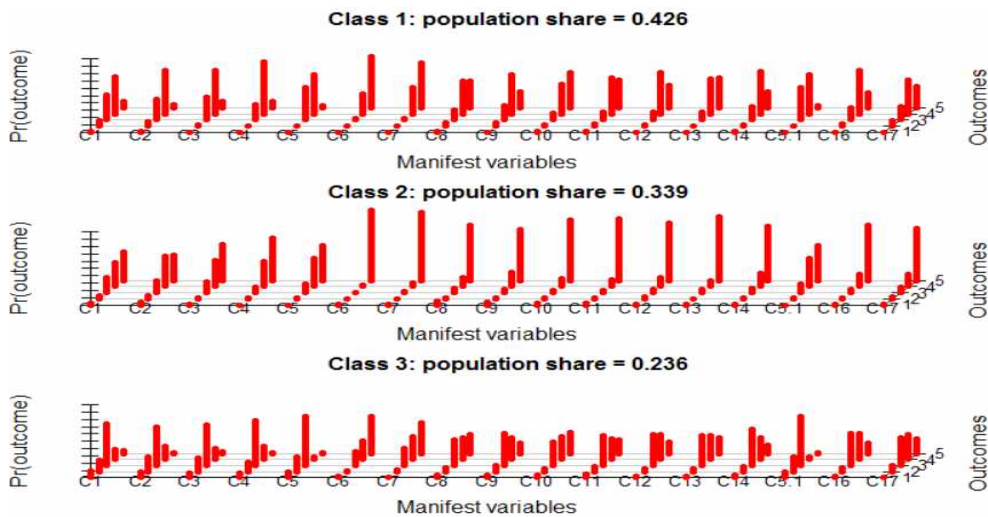
<표 5>는 학생들의 시민의식은 3개의 잠재계층으로 나누어질 때 국어, 영어, 수학영역에 대한 잠재계층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잠재계층 1은 중립 집단으로, 잠재계층 2는 시민의식이 높은 집단, 잠재계층 3은 시민의식이 다소 낮은 집단이다.

<표 5> 학생변인에 의한 잠재계층 비율

		시민의식 잠재계층 비율		
		1	2	3
학생변인	독서활동, 비행빈도, 국어성적	.427	.338	.234
	독서활동, 비행빈도, 영어성적	.428	.336	.234
	독서활동, 비행빈도, 수학성적	.429	.236	.334
학생변인 + 학생이 인식한 교사변인	독서활동, 비행빈도, 수학성적, 교사사기 및 열의, 국어교사수업능력, 학습자중심 수업	.424	.342	.232
	독서활동, 비행빈도, 수학성적, 교사사기 및 열의, 영어교사수업능력, 학습자중심 수업	.425	.336	.237
	독서활동, 비행빈도, 수학성적, 교사사기 및 열의, 수학교사수업능력, 학습자중심 수업	.425	.338	.235

[그림 1]은 학생들의 시민의식에 학생변인(독서활동, 비행빈도, 수학성적)과 학생이 인식한 교사변인(교사사기 및 열의, 수학교사교과수업능력, 학습자 중심)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각 계층의 응답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잠재계층 1(중립적 시민의식)은 17문항으로 구성된 시민의식에 있어 3을 포함하여 4, 5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잠재계층 2(높은 시민의식)는 5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계층 3(낮은 시민의식)은 2를 포함하여 3, 4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학생변인과 학생인 인식한 교사변인에 의한 잠재계층별 응답형태(수학영역)

<표 6>은 학생들의 시민의식을 3개의 잠재계층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시민의식에 대한 학생변인(독서활동, 비행빈도, 국어 성적)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은 학생변인(독서활동, 비행빈도, 국어 성적)이 학생의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것이고 모형 2는 학생변인(독서활동, 비행빈도, 국어 성적)과 학생이 인식한 교사변인(교사의 사기 및 열의, 국어수업능력, 학습자중심수업)을 반영한 것이다.

모형 1에서 시민의식이 중립적인 집단(잠재계층 1)과 높은 집단(잠재계층 2)을 구분하는데 있어 독서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비행빈도는 시민의식이 높은 집단으로 가는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의식이 중립적인 집단(잠재계층 1)과 낮은 집단(잠재계층 3)을 구분하는데 있어 독서활동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비행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생변인(독서활동, 비행빈도 국어 교과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시민의

식을 잠재계층 중립적인 집단과 높은 집단을 비교하면

$$\ln\left(\frac{p_{2i}}{p_{1i}}\right) = 0.747 - 0.051 \times (\text{비행빈도}) \tex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반면 시민의식이 중립적인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하면

$$\ln\left(\frac{p_{2i}}{p_{1i}}\right) = -0.124 - 0.067(\text{독서활동}) + 0.041(\text{비행빈도}) \text{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빈도가 높아질수록 시민의식이 중립적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시민의식이 높은 집단으로 속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민의식이 중립적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독서활동이 많아지면 낮은 시민의식에 속한 학생들을 중립적 시민의식 집단으로, 비행빈도가 많아지면 중립적 시민의식 집단에서 낮은 시민의식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학생들의 시민의식에 대하여 독서활동, 비행빈도, 영어성적(<표 7>)과 독서활동, 비행빈도, 수학성적(<표 8>)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학생이 인식한 교사변인(교사사기 및 열의, 각 교과능력, 학습자 중심)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생변인(독서활동, 비행빈도 국어 교과 성적)과 학생이 인식한 교사변인(교사사기 및 열의, 학습자중심수업, 국어수업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시민의식을 잠재계층 중립적인 집단과 높은 집단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left(\frac{p_{2i}}{p_{1i}}\right) = -0.3.747 - 0.041(\text{비행빈도}) + 0.107(\text{교사사기 및 열의}) + 0.051(\text{학습자중심수업}) + 0.092(\text{국어수업능력})$$

이러한 양상은 학생들의 시민의식에 대하여 독서활동, 비행빈도, 영어성적, 교사사기 및 열의, 학습자중심, 영어수업능력(<표 7>)과 독서활동, 비행빈도, 수학성적, 교사사기 및 열의, 학습자중심, 수학수업능력(<표 8>)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의식이 중립적인 집단(잠재계층 1)과 낮은 집단(잠재계층 3)을 구분하는데 있어 독서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비행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생변인(독서활동, 비행빈도 국어 교과 성적)과 학생이 인식한 교사변인(교사사기 및 열의, 학습자중심수업, 국어수업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시민의식을 잠재계층 중립적인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left(\frac{p_{2i}}{p_{1i}}\right) = 2.464 - 0.059(\text{독서활동}) + 0.033(\text{비행빈도}) - 0.124(\text{교사사기 및 열의}) + 0.001(\text{학습자중심수업})$$

즉, 이러한 결과는 독서활동이 많아지면 시민의식이 중립 집단으로 속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비행빈도가 많아지면 시민의식이 낮은 집단으로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사사기 및 열의는 시민의식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변인과 교사변인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시민의식을 설명할 때 중립적 시민의식에 속하는 학생들은 교사변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높은 시민의식으로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반면 중립적 시민의식에 속하는 학생들과 낮은 시민의식에 속한 학생들을 비교할 때 학생이 인식한 교사변인은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학생들의 시민의식에 대하여 독서활동, 비행빈도, 영어성적, 교사사기 및 열의, 학습자중심, 영어수업능력(<표 7>)과 독서활동, 비행빈도, 수학성적, 교사사기 및 열의, 학습자중심, 수학수업능력(<표 8>)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국어영역에 대한 독서활동, 비행빈도, 교사사기 및 열기, 학습자중심 수업, 국어수업능력을 이용했을 때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계수	학생 시민의식	
		모형 1	모형 2
2/1	절편	0.747*	-3.748**
	독서활동	0.006	-0.008
	비행빈도	-0.051**	-0.041**
	국어성적	0.001	0.001
	교사사기 및 열기		0.107**
	학습자중심수업		0.051**
	국어수업능력		0.092**
3/1	절편	-0.124	2.464**
	독서활동	-0.067**	-0.059**
	비행빈도	0.041**	0.033**
	국어성적	0.001	0.001
	교사사기 및 열기		-0.124**
	학습자중심수업		0.001**
	국어수업능력		-0.084

* $p < .05$ ** $p < .01$

<표 7> 영어영역에 대한 독서활동, 비행빈도, 교사사기 및 열기, 학습자중심 수업, 국어수업능력을 이용했을 때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계수	학생시민의식	
		모형 1	모형 2
2/1	절편	0.808*	-3.786**
	독서활동	0.007	-0.006
	비행빈도	-0.053**	-0.048**
	영어성적	-0.001	-0.001
	교사사기 및 열기		0.115**
	학습자중심수업		0.063**
	영어수업능력		0.072**
3/1	절편	0.010	2.517**
	독서활동	-0.065**	-0.057**
	비행빈도	0.039**	0.030**
	영어성적	-0.001	-0.001
	교사사기 및 열기		-0.114**
	학습자중심수업		-0.010
	영어수업능력		-0.072**

* $p < .05$ ** $p < .01$

<표 8> 수학영역에 대한 독서활동, 비행빈도, 교사사기 및 열기, 학습자중심 수업, 국어수업능력을 이용했을 때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계수	학생시민의식	
		모형1	모형2
2/1	절편	0.783*	-3.626**
	독서활동	0.010	0.012
	비행빈도	-0.057**	-0.048**
	수학성적	-0.001	-0.001
	교사사기 및 열기		0.121**
	학습자중심수업		0.054**
	수학수업능력		0.023
3/1	절편	0.001	2.370**
	독서활동	-0.066**	-0.045**
	비행빈도	0.036**	0.040**
	수학성적	-0.001	0.001

	교사사기 및 열기		-0.116**
	학습자중심수업		-0.027**
	수학수업능력		-0.060**

* $p < .05$ ** $p < .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기교육종단연구 4차년도 데이터(중학교 1학년)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시민의식을 잠재계층으로 구분하여 학생변인(독서활동, 비행빈도, 교과성적) 및 학생이 인식한 교사변인(교사사기 및 열의, 교사수업능력, 학습자중심 수업)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학생들의 시민의식은 3개의 잠재계층으로 구분되었다. 각 계층의 응답 양상을 고려했을 때 잠재계층 1은 중립 집단으로, 잠재계층 2는 시민의식이 높은 집단, 잠재계층 3은 시민의식이 다소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즉, 잠재계층 1(중립적 시민의식)은 17문항으로 구성된 시민의식에 있어 3을 포함하여 4, 5응답이 많았고, 잠재계층 2(높은 시민의식)는 5 응답이 많았으며, 잠재계층 3(낮은 시민의식)은 2를 포함하여 3, 4의 응답이 많았다.

둘째, 이러한 잠재계층에 대한 학생변인(독서활동, 비행빈도, 교과성적)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교과성적은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서활동과 비행빈도는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비행빈도는 시민의식 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독서활동은 시민의식이 낮은 집단과 중립적인 집단을 구분하는 변인으로만 작용했으며 시민의식이 높은 것과는 연관이 없었다. 독서활동이 높으면 학생들은 시민의식이 낮은 집단에 비해 중립적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비행빈도는 시민의식이 중립적인 집단에 비해 시민의식이 높은 집단으로 속할 가능성을 낮게 하며, 시민의식이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높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비행정도가 시민의식 형성에 큰 영향력을 가지며 학교는 학생들의 비행 정도를 적절히 관리하고 선도해야 할 책무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시민의식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학생의 시민의식에 대한 교사변인(교사사기 및 열의, 교사 수업 능력, 학습자중심 수업)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사기 및 열의, 교사 수업능력, 학습자중심 수업은 학생들이 시민의식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였고, 낮은 시민의식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었다. 중립적 시민의식에 속하는 학생들과 낮은 시민의식에 속한

학생들을 비교할 때 학생이 인식한 교사변인은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낮았지만, 위의 결과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사기 및 열의) 뿐만 아니라 수업 능력도 학생들의 시민의식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교사의 다양한 측면이 학생의 시민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교사 스스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열의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 여러 관련기관의 도움이나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위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시민의식은 청소년 스스로가 지닌 요인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교사 특성이 청소년의 시민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청소년을 둘러싼 학교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교사의 사기 및 열기는 청소년의 시민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현장에서 교사-학생 간의 긍정적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추후에도 학교나 교사의 학생 시민의식 형성에 대한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되어 건전한 미래 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미정, 문신용 (2010). 시민의식 영향요인 연구-청소년 봉사활동의 동기, 진로성숙도, 학업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8(2), 111-141.
- 김영인 (2005). 청소년 참여적시민성 함양을 위한 NGO 활용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3(1), 3-25.
- 김영하 (2009). 중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구조와 그 함양 방안 연구. **윤리교육연구**, 8, 135-170.
- 김정은, 최용민 (2017). 아동의 대인관계역량과 시민의식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매개효과: 빈곤가정과 일반가정의 다집단분석.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25, 5-26.
- 김태준, 전인식, 변종임, 장혜승, 반재천, 조영하, 장근영 (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주 (2015). 중학생의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 분석, **중등교육연구**, 63(2), 175-206.
- 모경환, 김명정, 송성민 (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42(1), 77-101.
- 박균열 (2013). 현대 한국의 시민의식 실태조사 내용체계와 향후과제. **윤리연구**, 93, 1-35.
- 박성엽 (2004). **고등학생들의 학교급 및 임원경험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박용헌 (1996). **민주와 세계화와 교육과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효중 (2002). 민주사회와 시민적 덕목. **사대논총**, 65, 49-77.
- 윤도영 (2013).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호근 (2015). **시민성의 배양이 절실하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 은지용 (2002). **청소년 봉사활동 반성 경험이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수영 (2009). **온라인 게임이 중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근영, 박수억 (2011). **아동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총괄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호운, 조성환, 김영희 (2012).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 및**

-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비교. **한국생활과학회**, 21(4), 729-744.
- 지은림, 선광식 (2007). 세계 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39(4), 115-134.
- 최응렬, 이재영 (2008).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2, 400-436.
- 최현희, 정문성 (2018). 초등학교 학생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50(1), 171-189.
- 허경미 (2011). 비행청소년의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16, 285-316.
- 황윤주 (2001). **시민교육 학습자의 참여 동기 유형과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Gross, R. E., & Dynneson, T. L. (1991). *The Educational Perspective*. Social Science Perspective on Citizenship Education.
- Lutkus A., & Weiss, A. (2007). *The Nation's Report Card*. Civics 2006 NCES.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Kline, R. B. (2005).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2nd ed.)*. New York: McGraw-Hill.
- Ross, A. (2007). Multiple identities and education for active citizenship.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5(3), 286.

